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표지 탐색하기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책의 제목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

2) 책의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

(3~4) 책의 뒤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환이와 함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꾸리찌바로 떠나 보아요

환이와 아빠의 생태도시 여행!

어린이의 눈으로 바라본 생태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빠는 환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야말로 생태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3) '환이'와 '아빠'가 여행한 '생태도시'란 무엇인지 조사하여 써 보세요.

⇒

4) 윗글에서 이 책의 주제와 관련 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이 문제에서 책을 읽기 전에 표시한 부분이 이 책의 주제가 맞는지, 책을 다 읽고 나서 확인해 보세요.)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가) • 우리나라의 반대편 남반구에 위치한 꾸리찌바는 땀이 송골송골 돋는 한여름이었습니다.

• 물론 말끔하게 다시 단장해서 낡고 지저분한 느낌은 조금도 없었어요.

• 그러고는 을씨년스러운 이곳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극장으로 만들었습니다.

• 그 덕에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도 크게 줄었다.

(나) • “꾸리찌바는 예술적 재활용을 ㉠□□□□으로 삼고 있어.”

• 재활용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거리도 주고, 또 그 수입을 다시 사회를 위해 쓴다니, ㉡□□□□입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돋다 : (), 단장하다 : (), 을씨년스럽다 : (), 배회하다 : ()

- ① 건물, 거리 따위를 손질하여 꾸미다.
- ② 살갓에 어떤 것이 우툴두툴하게 내밀다.
- ③ 보기에 날씨나 분위기 따위가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
- ④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2) 아래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들어갈 낱말을 쓰세요.

- ㉠□□□□ :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 ㉡□□□□ : 돌 한 개를 던져 새 세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동시에 세 가지 이득을 봄을 이르는 말.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은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가) ① 그리고 손가락으로 남아메리카 ()에 있는 한 곳을 짚었습니다.
 ② 이곳에 유학 와서 () 공부를 하다가 멜루 아저씨를 만나 가정을 이루셨지요.
 ③ “이것들은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리찌바 사람들의 끈끈한 땀이 배어 있는 역사의 흔적이야.”
 ④ 오빠라 데 아라메 극장은 밖이 흰히 비치는 투명한 유리 () 지붕에 벽도 온통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⑤ “원통형 버스 정류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꾸리찌바 시의 ()이란다.”
- (나) “꾸리찌바 사람들은 도시 자체를 창조적인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부수기보다는 아름답고 쓸모 있는 건물로 되살리려고 애쓰지.”

1)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 명물 : 어떤 지방의 이름난 사물.
- 돔 : 공처럼 둥글게 생긴 물체를 절반으로 나눈 모양으로 된 지붕.
- 생태학 : 생물의 생활 상태,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식민지 : 정치적·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
- 반도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대륙에서 바다 쪽으로 좁다랗게 돌출한 육지를 말한다.

2) (나)에서 서로 반대되는 뜻으로 쓰인 낱말을 찾아 쓰세요. (기본형으로 쓰세요.)

□□□ ⇔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꿈속의 도시

다음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아빠는 잠시 눈을 감고 머릿속에 꾸리찌바를 그려 봅니다.

공원을 거닐며 마음껏 푸르름을 즐기는 사람들,
주말이면 무료로 사람들을 공원으로 실어다 주는 녹색 버스.....
꾸리찌바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죠.

(나) 아빠는 오늘도 꾸리찌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 "정말 동화 속 이야기 같아요."

"시민들이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없지.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도시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이야."

"아빠, 꾸리찌바라는 도시가 정말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럼, 꾸리찌바는 동화 나라가 아냐."

환이는 얼른 지구본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는 지구본을 빙그르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남아메리카 반도에 있는 한 곳을 짚었습니다.

"자, 여기가 브라질이야. 꾸리찌바는 바로 여기, 브라질의 빠라나 주에 위치하고 있어." / "아, 여기 있네요."

환이는 보물섬이라도 발견한 듯 **Curitiba**란 알파벳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1) 윗글에 나타난 '꾸리찌바'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Curitiba** : □□□의 빠라나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 □□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임.
- **도시가 만들어진 과정** : 시민들 모두가 □□ □□을 갖고 □□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2) (나)에서 '환이'가 ㉠과 같이 말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꽃의 거리

다음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저기가 **꽃의 거리**야.” 아빠와 환이는 자전거를 세워 놓고 보행자 광장인 ‘꽃의 거리’로 향했습니다. 자동차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경쾌하게 걷는 사람들 모습만 보입니다.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인디오 할아버지가 밝은 표정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이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소박한 축제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꽃의 거리’를 환이는 신나게 걸었습니다.

“자동차 걱정 안 하고 걸으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영국의 밀턴케인스라는 도시에도 **레드웨이**라는 붉은 벽돌색 길이 있는데, 사람들만 다니는 보행자 전용 도로란다. 길이 잘 닦여 있으니깐 사람들도 차를 타기보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지.” / “우리나라도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조금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꽃의 거리’ 저쪽 끝에 전차가 보입니다. / “‘꽃의 거리’에 웬 전차예요?”

“아, 저건 탁아소야. 폐전차를 탁아소로 재활용한 거지. 쇼핑하러 나온 부모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저기 봐! 놀이 기구도 있지?”

1) 윗글에 나타난 ‘꽃의 거리’와 ‘아빠’가 말한 ‘레드웨이’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p>꽃의 거리 : 꾸리찌바에 있는 보행자 □□ 으로, 소박한 □□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 으며 □□를 탁아소로 재활용하고 있음.</p>	<p>레드웨이 : □□의 밀턴케인스라는 도시에 있는 붉은 □□ 길로, 보행자 전용 □□ 이며 사람들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님.</p>
--	--

2) 윗글에서 ‘아빠’가 조금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예술도 재활용해요!

다음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차창 밖으로 본 꾸리찌바는 새 건물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많았습니다. 물론 말끔하게 다시 단장해서 낡고 지저분한 느낌은 조금도 없었어요. 환이는 그러한 건물들에 정감이 갔습니다. / “꾸리찌바 사람들은 도시 자체를 창조적인 종합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부수기보다는 아름답고 쓸모 있는 건물로 되살리려고 애쓰지. 꾸리찌바는 예술적 재활용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

(나) “그런데 아빠, 조금 전에 꾸리찌바를 종합 예술로 본다니 그건 무슨 뜻이지요?”
 “응, 도시를 예술 작품처럼 만들고 가꾸어 나간다는 거야.”
 “음악, 미술, 연극 모두 포함해서요?” / “그렇지. 꾸리찌바 시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역사와 문화도 재활용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도시란다.”

(다) 한창 시 청사 벽화를 올려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환이를 불렀습니다. 환이가 손가락을 들어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에 그림이 있어요.”
 “아, 벽화구나. 참 멋지지! 저기 그려진 나무는 빠라나 소나무고, 그 맞은편은 지혜의 등대야. 꾸리찌바를 상징하지.”

1) (가)~(나)에 나타난 ‘꾸리찌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꾸리찌바 사람들은 도시 자체를 창조적인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이라고 생각함.	
오래된 건물을 부수기보다는 아름답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로 되살리려고 애쓰며, 예술적 재활용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으로 삼고 있음.	도시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처럼 만들고 가꾸어 나가며, 자연환경뿐 아니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도 재활용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있음.

2) (다)의 밑줄 친 ‘시 청사 벽화’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 윗글에서 찾아 쓰세요.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나뭇잎 가족 캠페인 / 쓰레기 아닌 쓰레기

다음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뭇잎 가족 캠페인'이란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나뭇잎 모양의 옷을 입고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뭇잎 가족 캠페인'에는 특별히 꾸리찌바의 전 시장님이었던 레르네르 아저씨도 참여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아빠가 레르네르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는데, 꾸리찌바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나) "녹색교환의 날을 따로 두어 이런 활동을 크게 하기도 해. 쓰레기와 재활용 물품을 교환하는 거지. 환이도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겠지?"
"그럼요, 미래의 값진 돈이 된다는 것도요."

(다) 작은 학교는 보통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곳에도 책상과 걸상, 비디오, TV 등이 있습니다. 모두 쓰다 버린 것들을 재활용 공장에서 수리해 만든 소박한 물건들이지요. 어린이들은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이 학교에서 직접 보고 배웁니다.

1) 윗글에 나타난 '꾸리찌바 시'에서 하는 일을 정리하여 아래 표를 완성해 보세요.

① 나뭇잎 가족 캠페인 : 가족들이 함께 나뭇잎 모양의 옷을 입고서	② 녹색교환의 날 :	③ 작은 학교 : 쓰다 버린 것들을 재활용 공장에서
--	-------------	------------------------------

2) 위에 정리한 '꾸리찌바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고르고, 그 이유를 써 보세요.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지구야, 태양아, 정말 고마워 / 땅 위의 지하철

다음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빠라 데 아라메 극장은 외국인 관광객은 꼭 들르는 꾸리찌바의 명소입니다. 원래는 채석장이었는데 돌이 다 채굴되어 쓸모가 없어지자 시에서 싼값에 사들였대요. 그러고는 을씨년스러운 이곳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극장으로 만들었답니다. 오빠라 데 아라메 극장은 밖이 흰히 비치는 투명한 유리 돔 지붕에 벽도 온통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작은 호수 위의 철제 다리를 지나 극장 안으로 들어가면 유리벽을 통해 주변의 나무들이 보입니다. 마치 숲 속의 무대에 앉아 있는 느낌이 들지요.

(나) “원통형 버스 정류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꾸리찌바 시의 명물이란다.” 그때 빨간색 버스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어, 그런데 버스가 우리나라의 버스 3대를 이어붙인 듯 기다랗습니다. 굴절버스라고 불리는 이 버스는 꾸리찌바의 대표적인 운송 수단이에요. 한 번에 270명이나 탈 수 있다니 굉장하지요.

“와, 버스가 참 길어요. 꼭 기차 같아요.”

“그렇지? 버스를 지하철처럼 빠르고 편안한 교통 수단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든 거야. 버스도 이렇게 길게 만들고 말야.”

1) (가)에서 ‘오빠라 데 아라메 극장’을 만든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나)에서 알 수 있는, ‘꾸리찌바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와 관련된 특징을 써 보세요.

- 버스 정류장 :
- 버스 :
- 도로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지혜의 등대

다음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오늘은 꾸리찌바에서의 마지막 날, 환이는 로즈 아줌마와 '지혜의 등대'에 갔습니다. '지혜의 등대'는 3층짜리 미니 도서관입니다. '지혜의 등대'에는 출입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초등학교와 연결돼 있고 또 하나는 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학생용과 주민용인 셈이지요. 빨간 지혜의 등대 꼭대기에는 망대도 있습니다. 망대는 밤이 되면 주변을 환히 밝혀 준대요. 또 등대는 비상 전화도 있고 밤 9시부터는 경찰관이 근무한다니, 지혜의 등대는 치안의 등대이기도 한 모양입니다.



(나) "환이가 컸을 때는 우리나라에도 사람과 자연이 서로 돕는 **환경도시**가 많아져야 할 텐데....." / "그런데 그런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꾸리찌바를 보고 그대로 쫓아가면 될까요?" 멜루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꾸리찌바도 완벽한 도시는 아니란다. 사람도 도시도 계속 변하니까 지금은 완전해 보여도 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환이는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과 자연을 조화시켜 도시를 개발한 그들의 노력하는 태도를 배우면 되는 거야." / "사람과 자연의 조화....."

1) (가)에서 '지혜의 등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두 찾아 쓰세요.

⇨

2) (나)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써 보세요.

⇨



숨 쉬는 도시 꾸리찌바 (초등 3단계)

파란자전거 | 안순혜 글 / 박혜선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1) (예시답안) 도시가 숨을 쉰다고 하니 신기했고, ‘꾸리찌바’란 말의 어감이 재미있다. 2) (예시답안) 건물과 자동차가 있는 도시의 풍경이 하늘에서 내려다보이고, 위와 왼쪽에는 화려한 색깔과 다양한 무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맨 앞에는 눈과 입이 있는 나뭇잎들이 웃고 있다. 3) 생태도시 :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되어 함께 살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도시. 4) 사람과 자연의 조화
2쪽	1) 돈다 : ②, 단장하다 : ①, 을씨년스럽다 : ③, 배회하다 : ④ 2) ㉠ : 좌우명, ㉡ : 일석삼조
3쪽	1) ① 반도, ② 생태학, ③ 식민지, ④ 돔, ⑤ 명물 2) 부수다 ⇔ 되살리다
4쪽	1) 브라질, 자연, 인간, 주인 의식, 도시 2) (예시답안) 아빠가 들려주신 꾸리찌바 이야기가 현실에 없는 곳의 이야기 같아서
5쪽	1) 꽃의 거리 : 광장, 축제, 폐전차 / 레드웨이 : 영국, 벽돌색, 도로 2) (예시답안) 우리나라도 빨리 꽃의 거리와 레드웨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환이의 말에 공감해서
6쪽	1) 종합 예술 작품 / 쓸모 있는, 좌우명 / 예술 작품, 역사, 문화 2) 빠라나 소나무와 지혜의 등대
7쪽	1) ① : 환경보호를 주제로, 노래하고 춤추고 연극도 하는 것. ② : 쓰레기와 재활용 물품을 교환하는 날. ③ : 수리해 만든 물건들을 사용하고,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 되는지, 직접 보고 배우는 곳. 2) (예시답안) 꾸리찌바 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녹색교환의 날이다. 쓰레기와 재활용 물품을 교환하는 녹색교환의 날이 있으면, 우리 집 쓰레기를 가져다주고 실제로 필요한 재활용 물품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8쪽	1) 돌이 다 채굴되자 시에서 짠 값에 사들였음. 2) • 버스 정류장 : 원통 모양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물임. • 버스 : 버스 3대를 이어붙인 듯하고, 굴절버스라고 불리며, 270명이나 탈 수 있음. • 도로 : 빠르고 편안한 교통 수단을 만들기 위해 버스 전용 도로를 만들었음.
9쪽	1) 3층짜리 미니 도서관, 망대는 밤이 되면 주변을 환히 밝혀 줌, 치안의 등대 2) (예시답안) 우리나라에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만들어야 하며 사람과 도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과 자연을 조화시켜 도시를 개발한 꾸리찌바 사람들의 노력하는 태도를 배워야 한다.